

산사나이들 약속 지켰다

영호남 마나슬루 원정대

해발 7500m 지점서

故박행수 대원 시신 수습

김미곤 대원 정상 등정도



故 박행수 대원 김미곤 대원

지난해 히말라야 마나슬루(Manaslu·8163m) 등반 도중 숨진 동료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원정대에 나선 영·호남 산악인들이 해발 7500m 지점에서 고(故) 박행수(당시 29·광주대OB) 대원의 시신을 찾아냈다.

이와 함께 김미곤(39·한국도로공사산악팀) 원정대장은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로프와 각종 장비를 이용해 박 대원의 시신을 찾아 제2캠프까지 내리는데 꼬박 8일이 걸렸다”며 “악조건 속에서도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해준 대원들이 너무 고맙다”고 밝혔다.

박 대장은 하지만 “제4캠프 아래 크레바스 지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윤치원(당시 41·진해산악회) 대원의 시신은 수차례 주변을 수색했음에도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시신 수습 소식을 들은 박 대원의 가족들은 9일 네팔로 출국했다. 원정대는 가족들과 협의해 시신을 현지에서 화장한 뒤 오는 13일 광주로 옮겨와 무등산 품에 안길 계획이었다.

이와 앞서 대원들은 지난달 28일 제4캠프 위쪽 7500m 지점에서 지난해 등반 과정에서 실종된 고(故) 박행수 대원의 시신을 찾아 약전고

두 끝에 제2캠프(6400m)까지 옮겼다. 이후 지난 4일 헬기 2대를 동원해 네발 카트만두 병원으로 운구, 안치했다.

박상수(53·한국도로공사산악팀) 원정대장은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로프와 각종 장비를 이용해 박 대원의 시신을 찾아 제2캠프까지 내리는데 꼬박 8일이 걸렸다”며 “악조건 속에서도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해준 대원들이 너무 고맙다”고 밝혔다.

박 대장은 하지만 “제4캠프 아래 크레바스 지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윤치원(당시 41·진해산악회) 대원의 시신은 수차례 주변을 수색했음에도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시신 수습 소식을 들은 박 대원의 가족들은 9일 네팔로 출국했다. 원정대는 가족들과 협의해 시신을 현지에서 화장한 뒤 오는 13일 광주로 옮겨와 무등산 품에 안길 계획이었다.

이와 앞서 대원들은 지난달 28일 제4캠프 위쪽 7500m 지점에서 지난해 등반 과정에서 실종된 고(故) 박행수 대원의 시신을 찾아 약전고



‘자유를 향한 2011마나슬루원정대’ 대원들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나슬루 사면에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원정대 제공>

섰다가 꼭대기를 불과 60여m 앞둔 해발 8100m 지점에서 강한 바람과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화이트 아웃을 만나 비박을 한 뒤 하산을 강행했으나 악천후로 인해 실종됐다. 결국 두 대원의 장례식은 지난해 5월 9~11일 고향인 광주와 진해에서 시신 없이 치러졌다.

위 단장과 박 대장, 김 대원을 포함한 차영민(54·진해산악회) 부단장, 이정현(40·순천대OB) 등반대장, 김덕신(48·진해산악회)·박나수(46·동백 무등산점 대표)·윤육현(36·광주대OB) 대원 등 영호남 산악인 8명으로 구성된 원정대는 지난 3월 17일 출국, 마나슬루 원정에 나섰지만 잇단 폭설과 악천후로 등반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차가운 눈 속에 누워 있는 ‘악우’(岳友)를 찾으려 다시 오



겠다는 약속을 기어이 지켜냈다. 원정대는 오는 20일에 귀국할 예정이다.

마나슬루는 세계 제 8위의 고봉으로, 현지인들은 ‘마나사(Manasa)’라고 부르며 신성시한다. 산스크리트어로 ‘영혼’이라는 뜻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친환경 실적 부풀리면 사업비 삭감”

전남도, 시·군에 페널티 적용 통보

전남도가 친환경 농업 이행 실적 보고와 실제 인증면적에 차이가 발생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비 삭감 등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육성해온 ‘친환경 농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조성된 친환경농업지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도내 일부 시·군에서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

환경 인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특히 향후 친환경농업 이행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인증기관의 농가별, 필지별 인증실적을 조화해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했다. 그해 인증실적이 사업신청 당시나 전년도 실적보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 지도도 엄격히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행보고서 작성 시 착오로 잘못 기재됐거나 선정 농가가 축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일부 면적이 줄어들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6일 ‘농업정책 자금 집행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곡성군의 친환경인증면적이 2005년에서 2007년사이 감소했으나 계속 관련 예산이 배정됐고 무안군 등 10개 시·군의 14개 친환경농업지구는 친환경 농업 이행실적이 매우 부진한데도 사업비가 지원됐다 고 지적했다. 또 고흥군 등 13시군 18개 친환경농업지구는 친환경 인증면적에 대해 허위 이행보고서를 제출해 실제 인증면적과 차이가 나는데도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나 전남도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를 내렸다. /김지을기자 dok2000@

“고추는 한반도 자생 식물”

식품연구팀 “日 전래설 허황된 얘기” 반박

지금까지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온 고추가 한반도에 수천년전부터 있었던 자생 식물이라는 주장이 9일 제기됐다.

한국식품연구원의 권대영 박사 연구팀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정경란 연구팀은 최근 한국의 고추 유래에 대해 밝힌 ‘고추이야기’라는 책을 발간했다.

권 박사는 이 책에서 “고추의 일본 전래설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고추는 수천년전부터 한반도에 있었던 자생식물”이라고 주장했다

다. 권 박사는 또 “전세계에 여러 가지 고추 품종이 있는데 한국 고추는 만주, 키르키즈스탄, 내몽고, 헝가리 등의 지역에 있는 것과 같은 품종이지만 태국·인도네시아의 ‘만초’, 티베트·인도의 ‘변초’, 아프리카나 중남미 고추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는 원래 고추가 없었다”면서 “일본의 ‘대화본토’, ‘물류정호’ 등의 책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서 ‘고려호초’라고 불리는 고추를 일본으로 들여왔다고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성 원당제다원, 한국명차 대상

죽림다원 금상 수상

보성군은 최근 열린 한국명차 선정 대회에서 보성 원당제다원이 최고상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 고 9일 밝혔다.

원당제다원은 군수품질인증을 획득, 고급차 생산에 힘써 왔고 차음식 체험장을 운영하며 차맛을 이용해 만든 녹차떡·녹차김치·비빔밥·소스 등을 보급, 차 음식 대중화에 앞장선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명차 선정대회에는 전국에서 20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외형 15점, 차맛색 20점, 향기 25점, 맛 25점, 우

린 외 15점을 심사기준으로 공개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대상을 받은 보성 원당제다원은 차 맛과 향기 등에서 고른 점수를 얻었고 특히 우린 앞에서는 92.9점의 최고점을 얻었다. 김영욱 대표는 “앞으로 는 좋은 차뿐만 아니라 맛 좋은 차 음식을 만들어 녹차수도 보성의 차 산업 발전과 건강한 음식문화 보급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 죽림다원이 금상을, 청우녹차는 은상을, 한밭제다와 은과다원, 신록로제다, 백목다원, 선다원은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영산강 하구둑에 뱃길 설치해야”

나주 사회단체 결기대회

나주지역 사회단체인 영산강합의회는 9일 오후 나주시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에서 결기대회를 갖고 “영산강 뱃길을 가로막은 하구둑에 통선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면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뱃길이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전남도가 영산강 유역에 중·소형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영암호에 폭 20m·길이 70m 규모의 통선문(通船門·방조제 등에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하는 문)을 설치키로 한 데 이어 영산강 하구둑에도 통선

문 설치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전남도의 경우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지난 2004년 ‘영산강 뱃길복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2006년부터 영산강 하구둑과 영암호에 황포돛배와 유람선이 다닐 수 있는 통선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들은 “낙후된 전남과 나주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영산강 문화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산강 뱃길복원이 필요하다”면서 “영산강 뱃길을 가로막은 하구둑에 통선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20년 국민의료비 256조원…현재의 3배

고령화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의료수요가 급증하는 현 상황이 계속되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3배 이상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내 비중이 11.2%에 이를 것이라고 정부가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보고한 ‘2010~2020년 국민의료비 중장기 가(假)추계’ 자료에서 2020년 국민의료비가 2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73조7000억원(확정수치)인 국민의료비 규모가 2010년에는 81조원으로 커지고 2012

년에는 102조원에 이르러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2015년에는 144조원, 2018년에는 203조원으로 200조원대를 돌파, 2020년에는 256조원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2009년 6.9% 수준이던 GDP 내 국민의료비 비중이 2015년에는 8.8%로 현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이런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건강

보험과 의료급여, 공중보건, 산업재해 및 요양보험 등을 망라한 ‘공적 재원’의 부담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2009년의 공적 재원 비중은 58.2%이 비중이 60%까지 커진다고 가정했을 때 공적 재원은 2017년 108조원으로 100조원대로 늘어나며, 2020년에는 154조원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공적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지출도 2010년 35조원, 2015년에는 63조원으로 늘고, 2019년 100조원을 돌파해 2020년에는 113조원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합뉴스

자사 보유 부동산 매각 공고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3-20번지
23-154, 23-216, 23-218, 23-272, 23-283, 23-284, 73-38 (계 4,787㎡)

용도 일반상업지역

현 상태 인도 조건(지하 6층 구조물 존재)

문의 02)6908-7021, 7024 (인사총무팀)

※참조: 공시지가 ₩1,130,000~ ₩1,320,000/㎡

신원종합개발(주) www.swc.co.kr

당신의 현장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지게차 임대 · 렌탈

한국보다 굴삭기 광주 · 전남 대리점

굴삭기 · 지게차 · 판매 · 임대 · A/S · 중고매매 · 카페탈

덕승건설(주) · 덕승물류기계
T.959-0100, 374-1686, 010-8108-2500

농업인 구합니다!

도시근교 농장에 숙식을 하며
농사일을 할 분을 찾습니다!

모집인원 0명
근무일수 주 1회 휴무(평일)
근무조건

숙식가능자, 농사일 유경험자 우대
경운기 작동 가능자

근무장소 전남 화순군 영남리
급여 면접 후 결정
접수방법 팩스접수 / 방문접수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접수기간 채용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본 1통
연락처 062)651-8871
010-3763-7335
FAX 062)652-8866

서광타워(주)

법원경매

법원경매 법률상담 ☎226-2785 h.p 010-5879-8300

경매주택임대차 상담, 권리신고 배당요구, 경매고충해결
소유권이전, 명도소송, 인도명령, 건물철거, 유체동산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신청, 일반임대차

【추천경매물건】

서구 화정동 상가주택(총마트) 대지209㎡ 건물347㎡ 감정가3억1천 최저가2억2천	담양군 금성면 전원주택부지 면적 4556㎡ 감정가1억6천4백 최저가1억1천5백
담양군 대전면 주택,공장 대지1260㎡ 건물308㎡ 감정가2억4천 최저가1억7천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상가 면적552㎡(현일대1천만원) 감정가9억1천4백 최저가6억4천
화순군 도곡면 숙박시설 대지1674㎡ 건물1548㎡ 감정가 8억1천 최저가 3억6천3백	상무지구 금호쌍용아파트 7층 면적 165㎡ 감정가2억2천7천 최저가1억8천9백
서구 광천동 이면한세상아파트4층 142㎡ 감정가3억5천 최저가2억4천5백	서구 벽진동 주택,창고 대지473㎡ 건191㎡ (투자가치) 감정가1억4천2백 최저가9천9백
광산구 수완지구 신안실크밸리6층 105㎡ 감정가1억8천1백 최저가1억6천	서구 마곡동 대지 (법정지상권) 대지 175㎡ 8미터도로점 감정가1억6천6천 최저가1억1천1백
광산구 수완지구 원진에버빌 5층 143㎡ 감정가2억9천 최저가2억3백	광산구 신창동 주택,식당 대지368㎡ 건물166㎡ 감정가2억9천 최저가1억4천6백
북구 오치동 금호터온 7층 면적 105㎡ 매매가 1억2천	동구 지산동(조대후원) 다가구주택 대지231㎡ 건물321㎡ 매매가 3억1천

이외 광주,전남,북에서 진행중인 모든경매물건 의뢰 가능합니다!

명도대행·명도소송·강제집행 NO.1
변호사 김길수법률사무소
☎(062)226-2785 H.P 010-5879-8300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록서비스 · 개인회생정리관리 철저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4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1년 6% 정도(천만원월 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다대출** | 연체(등금미납)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가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 (은행금율)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부 제 022호)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자금용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KB시세·80%+a (60%)
금리: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보증금의·80%
금리: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용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부 제 010호)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